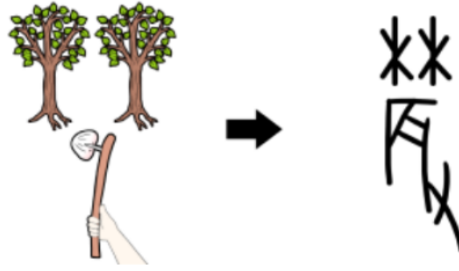


7(2)
-
11

회의문자 ①



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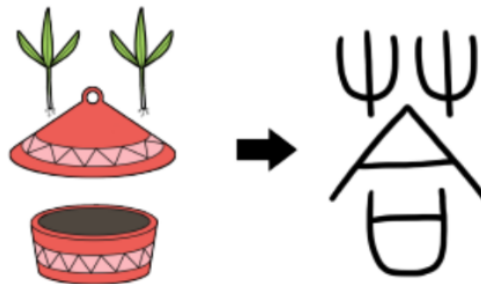
농사 농

農자는 '농사'나 '농부'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農자는 辰(별 진)자와 曲(굽을 곡)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辰자는 농기구의 일종을 그린 것이다. 갑골문에는 다양한 형태의 農자가 등장했었다. 어떤 것은 林(수풀 림)자에 辰자만 ^辰 있기도 했고 또 다른 것은 여기에 손이 그려져 ^辰 있기도 했다. 금문에서는 여기에 田(밭 전)자가 더해지면서 농기구로 밭을 가는 ^農 모습이 표현되었다. 금문에 쓰인 田자는 해서에서부터 曲자로 표현되면서 지금의 農자가 만들어지게 되었다.

갑골문	금문	소전	해서

7(2)
-
12

회의문자 ②



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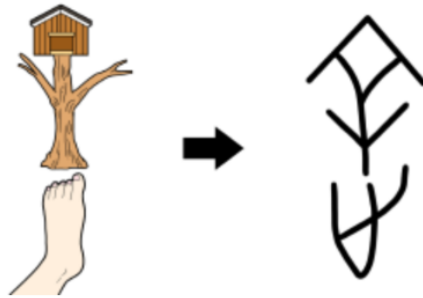
대답 답

答자는 '대답하다'나 '회답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答자는 竹(대나무 죽)자와 合(합할 합)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合자는 뚜껑이 있는 그릇을 그린 것으로 '합하다'라는 뜻이 있다. 그런데 答자의 금문을 보면 竹(대나무 죽)자가 아닌 艸(풀 초)자가 쓰였었다. 이것은 答자가 본래는 식물과 관련된 글자였음을 의미한다. 答자는 본래 '콩깍지'를 뜻하기 위해 만든 글자였다. 여기서 合자는 콩을 봉하던 콩깍지를 표현한 것이다. 그러나 해서에서부터는 艸자가 竹자로 바뀌면서 죽간(竹簡)으로 편지를 주고받는다라는 뜻으로 쓰이게 되었다. 여기서 '답하다'라는 뜻이 파생되었다.

소전	해서

7(2)
-
13

회의문자 ①



道

길 도

道자는 '길'이나 '도리', '이치'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道자는 辵(쉬엄쉬엄 갈 착)자와 首(머리 수)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首자는 '머리'라는 뜻이 있다. 道자는 길을 뜻하는 辵자에 首자를 결합한 것으로 본래의 의미는 '인도하다'나 '이끌다'였다. 그러나 후에 '사람이 가야 할 올바른 바른길'이라는 의미가 확대되면서 '도리'나 '이치'를 뜻하게 되었다. 그래서 지금은 여기에 寸(마디 촌)자를 더한 導(이끌 도)자가 '인도하다'라는 뜻을 대신하고 있다.



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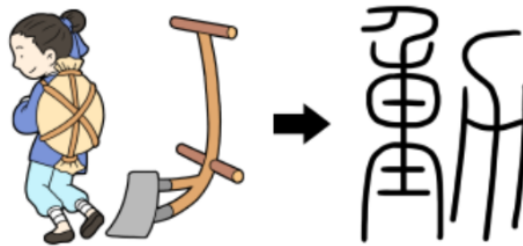
소전



해서

7(2)
-
14

회의문자 ①



動

움직일
동

動자는 '움직이다'나 '움기다', '흔들리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動자는 重(무거운 중)자와 力(힘 력)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重자는 보따리를 매고 있는 사람을 그린 것으로 '무겁다'라는 뜻이 있다. 이렇게 무거운 보따리를 맨 사람을 그린 重자에 力자가 결합한 動자는 보따리를 옮기기 위해 힘을 쓴다는 뜻을 표현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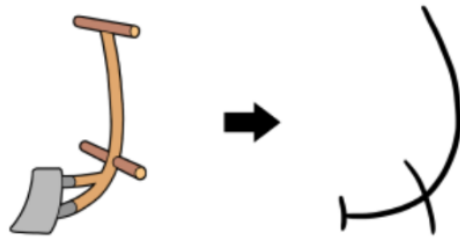
소전



해서

7(2)
-
15

상형문자 ㉠



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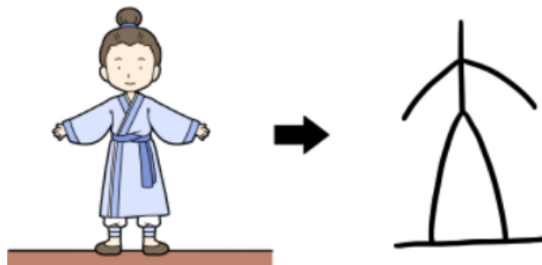
힘 력

力자는 '힘'이나 '힘쓰다', '일꾼'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갑골문에 나온 力자를 보면 밭을 가는 농기구가 𠂔 그려져 있었다. 농사일에는 고강도의 노동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본래 밭갈 이용 농기구를 그렸던 力자는 '힘'이나 '힘쓰다'라는 뜻을 갖게 되었다. 따라서 力자가 부수로 쓰일 때는 대부분이 '힘'이나 '힘쓰다'와 관련된 의미를 전달하게 된다. 力자가 '힘'과 관련된 뜻으로 쓰이게 되면서 후에 耒(쟁기 ㄹ)자가 '쟁기'라는 뜻을 대신하게 되었다.

갑골문	금문	소전	해서

7(2)
-
16

상형문자 ㉠



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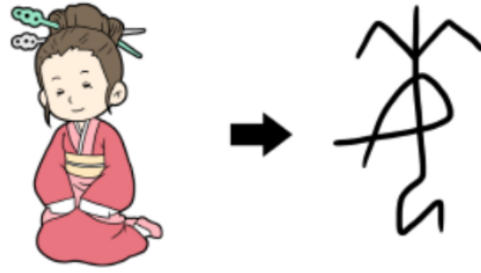
설 립

立자는 '서다'나 '똑바로 서다', '임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立자의 갑골문을 보면 大(큰 대)자 아래로 획이 하나 그어져 있었다. 이것은 땅 위에 서 있는 사람을 𠂔 표현한 것이다. 그래서 立자는 '서다'나 '똑바로 서다'라는 뜻을 갖게 되었지만, 땅을 딛고 당당히 서 있다는 의미에서 개인의 존재감이나 사물의 위치가 바로 세워져 있음을 뜻하기도 한다. 다만 상용한자에서 立자가 부수로 쓰인 글자들은 대부분이 노예와 관련된 글자인 𠂔(매울 신)자가 생략된 것이다. 그러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

갑골문	금문	소전	해서

7(2)
-
17

상형문자 ㉠



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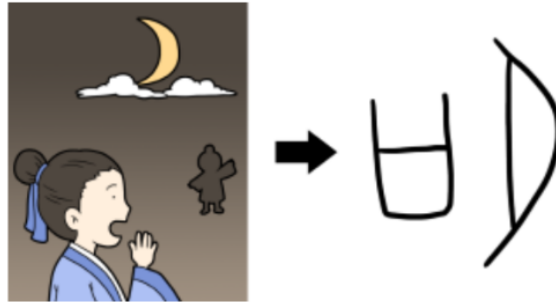
매양 매

每자는 '늘'이나 '마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갑골문에 나온 每자를 보면 비녀를 꽂고 있는 여자가 𠂔 그려져 있었다. 이것은 결혼한 여자라는 뜻이다. 그래서 갑골문에서는 每자와 母자를 종종 혼용되기도 했었다. 일부 문헌에서는 小每(소매)나 三每(삼매)와 같은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小母(작은 어머니)나 三母(세째 어머니)와 같은 표현이었다. 그러나 금문에서부터는 글자가 분리되면서 每자는 한결같은 어머니의 마음이라는 의미에서 '늘'이나 '항상'이라는 뜻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每자가 다른 글자와 결합할 때는 여전히 '어머니'라는 뜻을 전달하는 경우가 많으니 해석에 유의해야 한다.

갑골문	금문	소전	해서

7(2)
-
18

회의문자 ㉡



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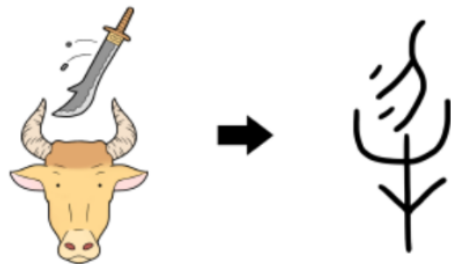
이름 명

名자는 '이름'이나 '평판'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名자는 夕(저녁 석)자와 口(입 구)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夕자는 초승달을 그린 것으로 '저녁'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 요즘이야 한밤중에도 사물을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 밝지만, 예전에는 그렇지 못했다. 그래서 어두운 저녁 저 멀리 오는 누군가를 식별하기 위해 이름을 불러본다는 뜻으로 만들어진 것이 바로 名자이다. 재미있는 발상이다.

갑골문	금문	소전	해서

7(2)
-
19

회의문자 ①



物

물건 물

物자는 '물건'이나 '사물'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物자는 牛(소 우)자와 勿(말 물)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여기서 勿자는 무언가를 칼로 내리치는 모습을 그린 것이다. 그래서 物자는 소를 도축하여 상품화시키는 모습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그러나 고대에는 다양한 색이 뒤섞여있던 '얼룩소'를 物이라고 했었다. 그러나 후에 다양한 가축의 종류나 등급과 관계된 뜻으로 쓰이게 되면서 지금은 광범위한 의미에서의 '제품'이나 '상품', '만물'이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다.

𠂔

갑골문

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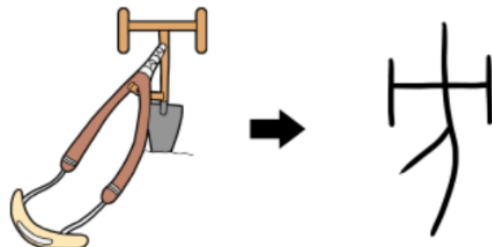
소전

物

해서

7(2)
-
20

상형문자 ①



方

모 방

方자는 '네모'나 '방위', '방향', '두루'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方자는 소가 끄는 쟁기를 그린 것으로 방향을 조절하는 손잡이와 붓줄이 함께 그려져 있다. 밭을 갈 때는 소가 일정한 방향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方자는 '방향'이라는 뜻을 갖게 되었고 밭이 사각형이었기 때문에 '네모'라는 뜻도 파생되어 있다. 주의해야 할 점은 方자가 부수로 쓰일 때는 우측 변에 위치한다는 것이다. 만약 좌측 변에 方자가 있다면 이것은 '깃발'을 그린 𠂔(나부길 언)자가 생략된 것이다. 상용한자에서 方자가 부수로 지정된 글자들은 대부분이 𠂔자가 생략된 것이다.

𠂔

갑골문

𠂔

금문

𠂔

소전

方

해서